



어린이

중학생을

위한

性教育

지침서

가르쳐 주세요

(제 6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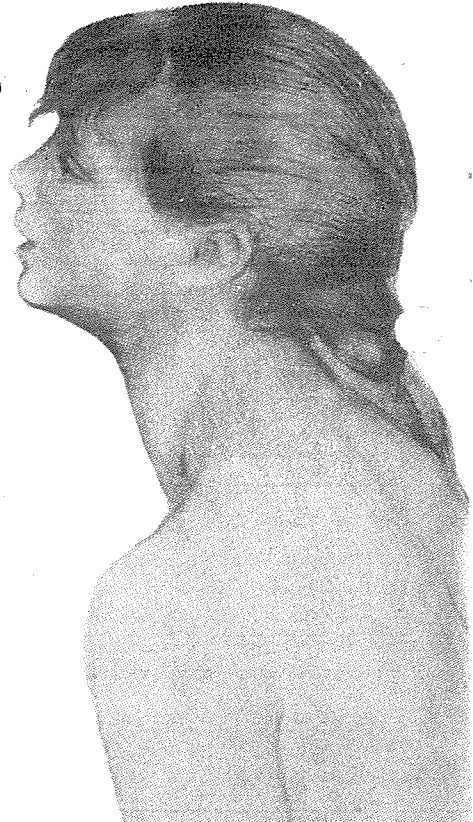
■ 鄭 東 哲

정동철 신경정신과의원장

“가르쳐 주세요”는 정신과 의사인 鄭東哲박사가 계속 집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박사는 어린 아들·딸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性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나? 를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박사와의 상담은 전화 265-6568 정동철신경정신과의원으로 하면됩니다.



외설물



국민학교 고학년 교실에서 외설적 글과 사진들이 나와 선생님을 놀라게 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 3의 통치자로 불리는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여 그것을 도구로 치부하는 동안 우리의 어린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비디오를 사다놓고 아이들 때문에 아예 팔아버려야겠다는 부모가 있다. 어느새 섹스 필름을 빌려다 보는 형편이 된 탓이다. 만화가계에선 고정 독자를 위해 그런 비디오를 돌려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단을 치고 혼줄을 내주어야 옳은가 아니면 멋지게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야 할 것인가 대답이 궁해진다.

우선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외설물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한 두 아이들이 보는 것을 가지고 떠들썩 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18세에 이르기까지 소년의 80%와, 소녀의 70%가 경험을 갖는다. 그것도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또는 습관적으로 보고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통계이다. 미국의 외설연구위원회는 여러 가지 조사연구를 했다.

위원회는 자녀들의 90%가 어머니를 통해 성정보를 갖고 싶다고 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10%에 머물고 따라서 친구에 의존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친구들은 책을 통해 단편적 또는 오염된 성지식을 갖게되므로 결국은 외설적 잡지나 소설들이 정보원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이 자녀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에 소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자녀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먼저 어른들이 대답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에 봉착한다. 어쨌서 어른들만 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역시 미국의 애기지만 92%의 남자와 여자의 72%가 성적 흥분을 위해 외설물을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다 한번 호기심으로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모든 어른이 다 경험자이다.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외설물에 접근해 있으면서 자녀들의 귀와 눈을 막으려니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다. 상업주의적 광고도 알고보면 대중의 호기심을 쫓아 활용되는 것이라면 요컨대 성인 남녀의 외설적 마음이 문제라는 결론에 이른다.

어른들의 입장이 이런 형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참으로 간단치가 않다. 위선적인 태도를 감추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을 터인데 그것이 결코 교육적이 아님은 말할나위가 없다. 생각같아선 아주 확 터놓고 함께 볼 것은 보고 들을 것은 듣고하면 논리상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들 자녀가 할 일이 뻔히 내다보이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설물에 대한 반대여론은 많다. 그것은 우리의 법첩에도 확고하게 되어 있다. 풍속을 해치는 형법상의 죄가 성립될 정도이다. 이론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진창에 들어가면 더러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외설물은 더러운 것이다. 그것은 난잡하고 추한 성기의 성활동을 무취미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것은 사랑도 애정도 약속도 없이 성자체를 영광되게 꾸민 것이며 돈을 위해 제작되는 것이다. 더구나 외설물은 성욕을 야기시키는데, 그것에 노출된 사람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사람들이 본 것을 실험해 보게 만든다. 강간, 혼외성관계, 가족의 파괴, 청소년탈선, 비자연적인 추잡한 성행위를 불러일으킨다. 상식과 도덕으로 판단할 때 외설물로 돈을 버는 행위는 마땅히 불법화해야 한다.」

이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당연히 외설물을 만들지 말 것이며 따라서 어른들도 과감하게 그런 것에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즐기려고 한다. 도대체 어찌자는 것일까? 그들은 물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봐도 괜찮지만 아이들은 안된다. 그들은 아직 판단력이 없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런 논리는 심지어 청소년에게도 있다. 자기들은 보아도 괜찮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린 아이는 보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정도의 논리로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충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

미국외설위원회 연구결과와는 이상하게도 외설물로 인한 나쁜 영향이 현실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여론도 그것을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외설물에 대한 찬성을 하는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자료를 읽고 볼 권리를 갖고 있다. 금지는 위험한 방법이며 민주적이 아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외설물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지의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 외설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 반대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외설물을 훨씬

덜 보고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외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자녀들에 대해 부모가 외설물에 대해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리라는 결론에 이른다. 솔직히 아무도 그것을 찬·반의 입장에서 강요할 그런 성질이 아니란 것이다. 다만 어느 편에 있던 철저하게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점이다. 찬성되면서 자녀에겐 반대하고, 반대하면서 한편 호기심을 이성한 방법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모 밑에 교육되는 자녀의 가치관이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참고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적 문제가 하나 고안된다. 찬·반과 관계없이 우리들의 자녀는 어쨌든 외설물을 대할 기회가 있게 된다. 그때에 그들에게 비로소 어떤 부모의 입장을 피력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평상시의 대화가 필요하겠다는 것이다. TV, 비디오, 잡지, 사진 등에 예기치 않은 성적 표현이 나올때가 있다. 바로 그런 시간을 얼버무리거나 또는 화제를 획 바꾸어 버리는 것보다는 그때 자녀들의 관심을 파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때 부모가 앞질러 부모의 의견을 강요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또다시 대화의 단절을 초래할 것이다. 자녀의 성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듣도

록 해야한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할 때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상대방의 의견이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와 태도 그리고 듣는 자세가 요구된다. 어쨌든 자녀의 관심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적 해명 또는 설명을 하고 의견을 나눌 때 부모의 입장을 말해 주면 될 것이다. 거기엔 주장하게 되는 이유를 함께 말해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므로써 장차 외설물을 대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에 따라 혼란을 겪지않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외설물이라 하면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할 때를 통상 말한다.

- ① 그 주된 주제가 병적인 흥미 또는 수치스런 흥미를 끌게 꾸민 것,
 - ② 현재의 사회규범을 초월한 것,
 - ③ 명예로운 사회 가치관을 전혀 도외시한 것 등이다.
- (계속)

디스토마 치료된다

너도 나도 검사받자

■ 한국 기생충박멸협회

■ 한국 건강관리협회